

광주관광재단 밈그림 나왔다

광주시 관광전략기구인 (가칭) 광주관광재단의 밈그림이 나왔다. '아시아 문화관광중심도시, 광주'로 비전을 설정하고 ▲문화관광도시 ▲생태녹색관광도시 ▲창의관광도시 ▲관광객친화도시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출연기관 형태가 가장 적합하며 타 기관이나 민간에게 위임하는 간접운영 방식도 제안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추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재단 설립의 추진동력을 얻어주목된다.

4일 시에 따르면 관광전략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가 나와 17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아시아 문화관광중심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운 용역 보고서는 먼저 문화관광

지역 내 관광속박업체의 평균 시설투자비가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설을 비롯해 최근 국제회의복합지구 선정과 더불어 지역 내 비즈니스 호텔, 어드벤처관광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호텔이 건립, 시설 개설중에 있어 국제관광도시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재단 조직과 관련해서, 광주시장이 이 사장을 겸임, 별도의 대표이사과 경영기획팀으로 구분, 관광진흥실장 아래 관광콘텐츠팀, 관광마케팅팀, 해외마케팅팀, 융복합관광진흥팀, 관광서비스팀 등으로 구분했다. 조직별 인력구성은 총 31명으로 관리직 2명, 사업운영팀 29명이 적절한 인원으로 분석했다.

재단 설립과 함께 김대중컨벤션센터, 광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4대 추진전략 제시 이달말 행안부 2차 협의, 내년 7월 설립 목표

도시와 관련, 전당 주변 문화관광 기반 시설을 확충해 문화관광도시로 지정 추진 등을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또 생태관광도시는 무등산권 전통문화 관광지구 조성 등 남도가람 공유 생태복원을 통한 수변형 생태체험관광을 개발하고, 창의관광도시를 위해 빛그린 산업단지 주변 산업 관광기반을 구축하는 등 아트팩토리 조성사업을 제기했다.

관광객친화도시는 아시아전승축제 브랜드 개발 및 테마파크 관광자원화 등 세부내용으로 포함했다.

보고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가 3천373명으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여행객의 방문 기간이 짧으며, 지출비용이 낮은 편이어서 체류형 관광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주관기관별 업무 등 중복 업무에 대한 재정비도 제안했다. DJ센터의 MICE관련 마케팅 업무 이관, 컨벤션부로의 경우 기존 수행 업무 전체를 재단에 이관하고 해체될 예정이다.

재단 사무실은 전일빌딩 리모델링으로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되는 만큼 전일빌딩 내 2층의 남도관광센터에 대한 운영권을 관광전략기구로 이양할 계획으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는 이달 27일께 행정안전부와 예정된 2차협의에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와 자료로 보다 폭넓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최종적으로 7월 재단설립을 목표로 등기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대기기자

육·해·공 '삼각편대'...전남 동부권 발전 '빅피처'

도, 드론·광양항 활성화·경도관광단지 등 新발전전략 제시 관광·농업 등 주력분야 발전, 차세대 산업 육성 활력 제고

드론산업, 광양항 활성화, 경도 관광단지 등 육·해·공을 아우르는 전남 동부권의 미래 발전 전략이 나왔다. 낙후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김영록 지사는 4일 전남도청에서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전남 동부권의 미래를 담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 경제의 중추 동부권' 발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남 동부권의 새로운 발전 전략은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이다. 무엇보다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확충에 심혈을 기울인다.

남해안철도(목포-보성) 전철화 사업이 최근 확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구간 중 '보성-순천 간 전철화'가 우선 추진되면

목포-보성-순천-광양-부산까지 2시간대로 동부권이 최상의 교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주 거점인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 속도도 빨라진다. 경도 진입도로 예타 통과와 공사가 5년 당겨지면서 2024년 조기 개장할 전망이다.

연인원 2만5천명 이상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 국제회의인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여수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경남과 함께 'COP28 유치위원회'를 구성·출범할 예정이다.

우수한 생태환경을 보유한 순천시에 '2021년 UCI 국제산악자전거대회'와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역량을 집중한다.

고흥군에 위치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창업 혁신모델로 육성 및 수출선도지원단을 만들어 농산물에 대한 수출 중심 유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구례군에는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농촌관광과 연계한 '친환경 유기농업 복합타운'을 조성해 6차산업 선도로 모델로 육성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전남 동부권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차세대 대표 신산업인 '드론산업'과 석유화학·철강 등 전통주력 산업 허브 향방인 '광양항' 발전에 주력한다.

도 관계자는 "동부권 제2도약을 위해 관광·농업 등 기존 주력분야 심층 발전을 도모하고, 차세대 산업으로 부상하는 등 핵심사업들을 육성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임재민기자



내 점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4일 오전 서구 화정동 광주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점수를 확인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김애리기자

'전국의 5·18들' 대만서 특별전

8일-22일 입법원 초청...외국 국가기관 초청 전시는 처음

5·18 민주화운동 유사한 경험을 겪고, 현재 굴곡진 과거사의 청산을 추진 중인 대만에 '전국의 5·18들' 특별전이 개최된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8일부터 22일까지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5·18 소개와 미완의 과제 등을 사진, 영상으로 보여주는 특별전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대만 입법원이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최된 '전국의 5·18들' 특별전 관람을 계기로 전시회를 초청하면서 이뤄졌다. 5·18이 외국 국가기관의 공식 초청으로 전시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메이리다오 사건 40주년을 맞는 대만은 정부위원회인 '전환기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과거사 청산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메이리다오 사건 1년 뒤 일어난 한국의 5·18에 주목하고 있다. 5·18이 단순한 항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사 진상조사가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관련 유적과 기록물의 보존, 지속적인 기념행사의 개최 등에서 인상을 받아 전시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리다오 사건은 계엄령하인 1979년 12월 10일 메이리다오 잡지사 직원을 포함한 민주화인사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2·28사건(1947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주화운동으로 이를 계기로 각종 집회와 시위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대만 정부와 입법원은 메이리다오 사

건 40주년과 한국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의 민주화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사건을 기념하고 있고, 미완인 대만의 과거사 정리실태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환기 정의 및 과거사 청산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전시는 ▲1980년 5·18 열흘간의 항쟁 ▲1980년대 민주화를 요구하며 목숨을 던진 열사들 ▲1980년대 전국의 '5·18진상규명시위'들 ▲열사가 마지막 남긴 말들 ▲전국의 민족민주열사묘역, 민주화운동기념공원 소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과정 및 과제 등이 소개된다.

한편, 5·18기록관은 지난 5월-7월까지 5·18기록관과 국회, 서울시청 등에서 '전국의 5·18들' 특별전을 개최했다. /김종민기자

호남 최초 스마트폰 방송국 광주매일 TV

[파워인터뷰]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파워인터뷰] 주철현 전 이수시장
광주매일TV KCTV광주방송 오성수의 이수 분석 - 11월 첫째주

m.kjdaily.tv | m.kjdaily.com PC·스마트폰·유튜브·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고·시청문의 062)650-2024

광주매일신문 에너지 절약 실천 연중캠페인

전 국민
에너지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고
10%환급
받으세요

지원 대상

- 전 국민
- 7개 품목의 에너지효율 가전제품 구매자
- * 단, 품목별 대상 등급 상이

지원 기간

- 구매기간 : 2019년 1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신청기간 : 2019년 11월 6일 ~ 2020년 1월 15일
- * 재원 소진 시 조기 마감

환급 금액

구매가격[부가세포함 결제가격]의 10% (개인별 최대 20만원 이내)

에너지효율 고객센터 1670-7920 (평일 09시 ~ 18시)
홈페이지 <http://rebate.energy.or.kr>

구매처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매장
* 온·오프라인 모두 포함

환급 품목

구분	품목	등급	최근 기준시행일
1	냉장고	1	'18.4.1
2	김치냉장고	1	'17.7.1
3	에어컨	벽걸이 그 외	1 1~3 '18.10.1
4	냉온수기	저장식 직수식	1 '18.1.1
5	전기밥솥	1	'18.4.1
6	공기청정기	1	'18.1.1
7	제습기	1	'16.10.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